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9월 7일 목요일 (음 7월 17일)

제188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아파트 베란다에서 전기 생산한다

전주시가 에너지 자립을 위해 베란다에서 태양광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햇살아파트를 늘리기로 했다.

시는 에너지 절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을 위해 소규모 태양광 설비를 보급해 에너지 사용 주체인 시민들이 직접 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돕는 '베란다형 태양광(햇살아파트)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관련기사 4면>

시는 올 연말까지 공공주택 등 신축 가구에 베란다형 소형 태양광 모듈을 보급할 계획으로, 국비와 도비가 확충됨에 따라 2억7,900만원의 사업비로 500여 세대에 가구당 50만2,000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베란다 태양광 보조사업 추진을 위해 참여기업을 선정한 후 9월 중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를

전주시, 에너지 자립 햇살아파트 보급사업 추진
사업비 2억7900만원 투입 500여 가구에 지원
한달 평균 최대 8000원 전기요금 절감 효과

통해 신청가구 모집을 공고할 예정이다. 이후 10월까지 우선 공공주택 단지와 30세대이상 단체신청을 선착순으로 접수하고, 사업예산 잔여 물량에 대해서는 오는 11월까지 개별신청을 접수하기로 했다.

베란다에 태양광(250W) 설비가 보급된 가정에서는 한 달 평균 4,000~8,000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에너지를 단순히 사용하는 것에서 벗어나 스스로 만들어 쓰는 분위기가 확산돼 에너지 자립도시 전수 실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현재 각각 11%와 5.8%에 불과한 전주시 에너지자립률과 전력자립률을 오는 2025년까지 각각 30%와 4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 지역 에너지계획인 '에너지 디자인 3040'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햇살아파트 보급사업의 모태가 되는 이 에너지 계획에는 가정에서 태양광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햇살아파트를 오는 2025년까지 1만가구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이러한 지역에너지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오는 2025년까지 전주시 전체 에너지 수요의 12.8%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절감하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에너지 전환대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5년에도 시범사업으로 1억700만원을 들여 210가구에 베란다형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원했다.

권혁신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태양광발전기를 활용하면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력을 스스로 생산해 하는 햇살아파트 주민들을 늘리고, 시민들의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유도해 에너지 자립도시 전수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감자 속이 '컬러' 6일 오후 김제시 김제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국산 가공 원료용 감자 활성화 심포지엄'에서 참가자들이 컬러 감자를 보며 신기해하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도내 우수 농특산물, 저렴한 가격에 | '삼락농정 농식품 락(樂) 페스티벌'

9월 한달동안 도내 곳곳에서 개최

전북도는 도내 우수 농특산물과 마을상품을 도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9월 한 달 동안 도내 여러 곳에서 도민과 함께 '삼락농정 농식품 락(樂)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삼락농정 농식품 락(樂) 페스티벌 세부행사는 '마을상품 소비촉진 협약식', '전북 삼락로컬마켓 개장식', '삼락농정 생생마을 한가위장터' 등 다양한 행사로 진행된다.

전북도는 농민과 도민이 함께하는 삼락농정 기반을 마련하고 도민들이 우리 지역 농산물을 소비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삼락농정위원회가 주관, 전북도 및 15개 도 출연기관과 전북 마을통합협동조합 간 '마을상품 소비촉진 상생협약' 오는 12일 오후 2시 도청 회의실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전북도와 출연기관은 도내 농식품 및 마을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 및 농어촌 봉사활동, 농어촌 체험 관광

등의 교류를 확대하고, 농업인,마을 기업 등 생산자는 안전한 상품을 공급과 농어촌 봉사, 체험 교류활동 등에 적극 협조하는 협약을 체결한다.

마을상품 전시와 마을상품 구매 가이드북을 배부하여 도와 출연기관 직원들이 마을상품을 편리하고 손쉽게 구매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광역 로컬푸드 매장인 '전북삼락로컬마켓'이 19일 오전 10시 개장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전북삼락로컬마켓'은 특정 시군이 아닌 도내 14개 시군에서 생산한 우수한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전국 최초 광역 로컬푸드 매장으로 소비자 지향의 신선한 농산물과 마을상품, 6차 산업 인증품 등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고 생산자는 안정된 판매처를 확보하는 등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거점 공간으로서 역할이 기대된다.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도청 다목적광장에서 추석맞이 생생마을 한가위 장터를 열어 1,300여종 농특산물, 마을상품 등을 판매한다.

이번 장터에는 '전북마을통합협동조합,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도지사인증상품, 우수중소기업' 등 176개 마을·단체가 참여해 농산물, 가공식품 등 추석 제수용품과 마을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각 협의회, 단체별로 소규모로 진행되던 장터를 통합하고, '전북음식문화대전'과 연계하여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가 있는 풍성한 한가위장터로 기획하여 참여농가와 소비자 모두 만족하는 축제의 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상반기부터 운영하고 있는 정례 직거래장터인 '전북삼락농정 장터'도 9월 7일~8일 2일간 전북도청 다목적광장(행사마당)에서 열려 도내에서 생산되는 마을

상품, 6차산업 인증품 및 신선 농산물 등을 중간 유통단계 없이 시중가보다 10~30%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시군과 농협들이 지역의 농특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한가위 직거래장터를 9월 20일~30일 기간 중에 시군청 등 소비자가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무주군과 전북농협 등은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서도 도내 직거래 장터를 열어 우리 지역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할 예정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삼락농정 농식품 락(樂) 페스티벌"을 계기로 도내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과 마을상품을 도민들이 쉽게 구매하고 소비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즐거운 '삼락농정'이 실현되기를 기대 한다."고 말하고,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김진성 기자

문 대통령 "北 도발 멈추지 않으면 통제 불가 국면"

문재인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여기서 북한의 도발을 멈추지 않으면 통제할 수 없는 국면으로 빠져들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34분부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 대학에서 진행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한·러 단독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때문에 국제정치 상황이 아주 엄중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래서 북한의 도발을 멈추게 하고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푸틴 대통령과 저는 연배도 비슷하고, 또 성장 과정도 비슷하며, 기질도 닮은 점이 많아서 많이 통한다고 느끼고 있다"며 서로의 접점을

찾는 것으로 회담의 밑꼬리를 엮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특히 푸틴 대통령이 추진하는 신동방정책과 제가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은 꿈을 같이 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진다"며 "한국은 러시아의 극동 개발에서 최적의 파트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러시아와 한국이 잘 협력한다면 극동 지역은 역내 번영과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저는 제 재임 기간 중에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를 크게 격상시키고 발전시키고 싶다"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늘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비롯해 우리가 우려스럽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양국 전반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돼 반갑다"고 말했다. /뉴시스

매일 INDEX

2면 - 도민 행복 증오는 건강

3면 - 유초중등교육 권한 이양 TF팀 가동

7면 - 아동의 권리 논하다

16면 - 군산시간여행축제 성공예감



치즈를 테마로 한 국내 유일 체험형 관광지

임실치즈 테마파크

전라북도 임실군 성수면 도인2길 50
전화 063-643-2300 www.cheesepark.kr